

서울노인영화제 본선 발표...총 36편 진출

2008년 시작한 영화제 매년마다 응모편수 늘어나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대표적 노인문화축제는 서울노인영화제가 개막 20여 일을 앞두고 본선 상영작과 프로그램 일정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유)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 감독에게는 꾸준한 작품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젊은 감독에게는 노인문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11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영화제는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7월 31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했다. 만60세 이상의 감독이 연출한 자유주제 부문, 만 60세 미만 감독이 노인 세대 및 문화를 주제로 연출한 노인주제 부문 영상공모전을 통해 140편의 영화가 접수됐다.

지난 제 4회 91편, 제 5회 124편 등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제에 대한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예선을 거쳐 총 36편(노인주제 21편, 자유주제 15편)의 영화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장르도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드라마 등 다양하다.

노인의 고민과 삶 담아내

제 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세대와 함께 그들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자리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노인, Knowing!'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36편의 본선작들은 슬로건에 맞게 노인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작 '할아버지의 호루라기'의 한 장면(좌). 감독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실제 주연배우로 등장시킨 영화 '123km'의 촬영장면(우).



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는 작품들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노인을 주제로 한 '할아버지의 호루라기(감독 김병영)' '123km(감독 김미경)', 자유주제로 '손길(감독 김문자)'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할아버지의 호루라기'는 2013년 제3회 총무로단편영화제 개막작으로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주변에 만연한 '4대 사회악'의 불감증을 한 노인의 시각과 죽음의 통틀고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123km'는 10여 년을 돈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던 모녀가 고물트럭을 타고 엄마 집으로 향하는 123km의 여정을 담았다. 독실한 불자인 김미경(25) 감독은 전문배우가 아닌 실제 어머니와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려 눈길을 끈다.

'손길'은 안마나 침술봉사를 하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진솔한 접근을 통해 그들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감독인 김문자(67) 어르신은 서

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한 '내일행복학교 2기 창의직업아카데미 영상제작 교육' 수료 후, 서울노인영화제에 출품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김 어르신은 처음 영화 촬영을 배우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예심 심사회의 때 시나리오 작성 및 연출 능력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9월 30일 개막...탐골미술관에서 특별전도
제 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작 36편은 6개 섹션에서 3일간 총 3회에 걸쳐 무료상영 된다.

행사 첫 날인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을 비롯, 개막초청작을 상영한다. 또한 본선 상영작 감독에게 서울시 표창장 시상식이 진행된다. 개막초청작으로는 대만 영화 '달려라, 그랜드 라이더스'가 상영돼 향후 아시아를 넘어 국제 영화제로서 시발점을 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같은 날에는 영화제 참여 감독들과 내빈, 관계자가 함께하는 '개막 리셉션' 시간

도 갖는다.
둘째 날에는 노인 감독과 청년 감독이 서로 토론하는 '열혈대담', 영화를 본 관객들과 감독들간 대화를 나누는 'GV: 감독과의 대화'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특별상영작 '아버지의 이메일(한국)' 상영 후 폐막식과 시상식으로 마무리 된다.

'부러진 화살' '남부군'의 정지영 영화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신인감독, 영화평론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탐골미술관에서 서울노인영화제 특별전시전도 마련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최유 스킴은 "제 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노년세대를 삶을 되돌아보고, 청년세대는 노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6911-9500

이내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북장애인복지, 스포셜올림픽서 '금' 4개



성북장애인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단 4명이 배드민턴 종목 전 부문에서 총 8개의 메달을 땀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이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8월 21~23일 수원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 3대 올림픽 중 하나인 스포셜 올림픽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대회이다.

올해 처음 한국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한 성북장애인복지관 6명의 선수단(선수 4명, 코치 2명)은 배드민턴 종목의 혼합복식, 남자복식, 남자단식, 여자단식 경기에 출전해 전 부문에서 메달을 땀다. 서울시 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김한성 학생을 비롯해 4명의 선수들은 각각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총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올해부터 생활체육사업을 도입해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 여러 종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의 경우 전문반을 운영해 다

양한 대회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배드민턴 전문반은 이번 대회 참가가 외부 대회를 통틀어 세 번째일 정도로 신생 팀이지만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스포셜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단 코치 및 감독들로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정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김병수 생활체육교사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경기 능력이나 집중력이 향상되고 목표의식을 가지는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 기쁘다"며 "학생들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대회에서의 활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장애 학생들의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내은 기자

대나무교실, 다문화어린이 추석예절 강의

차례지내기, 한복입어보기 등 체험



한복입어보기, 삼색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사)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 대나무교실은 이주여성과 다문화어린이들을 위한 추석맞이 예절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다문화아동교실 '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실시한 대나무교실은 9월 1일 야은 예절학교에서 지역 다문화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지내기, 한복입어보기, 삼색송편 만들기 등 다양

한 한국의 전통을 소개했다.

'대나무 교실'은 2013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에 선정돼 다문화 아동교실 '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심리치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내은 기자

송산실버문화센터,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8월 23·26일 진행, 70여 어르신 지원받아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최재혁)는 8월 23·26일 2회에 걸쳐 지역 홀몸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A+그룹의 지원 및 MBC뷰티아카데미와 의정부 한국프로사진협회(지부장 신용창)의 재능기부로 마련됐으며, 70명의 어르신 서비스 지원받았다.

이날 사진촬영을 위해 한복을 곁들 차려입고 온 한 어르신은 "영정사진을 찍으려던 촬영비와 앨범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불암사(회주 일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산실버문화센터는 매년 후원업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



홀몸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영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교실,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031)852-2595

이내은 기자

동자승 같은 우리 스님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9월 선정환자 시연 스님(34세·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릴 때부터 영특해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란 아이가 있다. 아이는 아픈 사람을 돕는 약을 연구하기 위해 약대에 진학했다. 대학시절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학생은 출가해 스님이 됐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던 시연 스님은 올해 1월 사형사제지간인 시공 스님과 쌍봉사에서 수행 중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평소 건강했던 스님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시연 스님은 조용히 병마와 싸우려 했으나, 상황이 악화돼 속세 가족들에게 위탁하기 위해 사정을 알아봤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부모님과 감상선안으로 투병중인 형의 사



시연 스님(남·급성 골수성 백혈병)

연을 듣고는 희망마저 접어야 했다. 사보험도 없었던 스님은 지난 4월 1차 고용량 항암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4백만원이 고스란히 빚이 됐다. 시연 스님은 향후 6개월 간 고용량 항암치료를 병행하면서 조혈모세포이식술도 해야 하는데 전체 치료비만 2천 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계좌 번호 053-01-243778(생명나눔) (02)734-8050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헤인 합장

입 중 및 사 찰 등 록 안 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 무 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 무 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